

광주는 서비스업, 전남은 제조업 비중 1위

2008년 시도별 소득·지출·생산력 분석

광주, 1인당 총생산 전국 평균보다 570만원 낮아

전남, 산업구조 농림어업 비중 전년비 8% 줄어

통계청의 2008년 광주·전남 지역 소득(잠정) 분석결과 광주·전남은 운수업과 사회복지업, 전남도에서는 제조업, 운수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이 지역내 총생산의 66.2%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았으며, 전남에선 제조업이 총 생산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경제 규모 및 성장 = 2008년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명목)은 22조5천억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그쳤다. 지난해 총생산 성장률은 5.5%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지만, 역시 전국 비중은 지난 2007년과 같았다.

지역내 총생산의 성장을 이끈 업종은 운수업(31.1%) 사회복지업(6.7%), 금융보험업(4.2%), 도소매업(1.5%)이었다. 그러나 제조업(-7.3%), 건설업(-0.7%)은 성장률 하락

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한 탓으로 분석됐다.

◇산업구조 = 광주시의 산업구조(생산·지출)별로는 서비스업이 생산의 66.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제조업(24.4%→23.7%), 건설업(7.9%→7.6%)의 비중은 2007년보다 축소됐다.

민간 소비는 지출의 6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비지출(16.4%), 건설투자(18.4%) 비중은 10%를 웃돌았다.

◇소득규모 및 증감률 = 광주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2천122만원)보다 570만원 낮은 1천552만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6위였다.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평균(1천149만원)보다 98만원 낮은 1천51만원으로 7대 도시 중 6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1천269만원)보다 80만원 낮은 1천189만원으로 5위를 차지, 하

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의 지역총소득은 22조7천억원 규모로, 전국의 2.2%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역내 총생산 대비 101.2%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소득은 17조2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8%로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제규모 및 성장 = 지난 2008년 전남의 지역내총생산(명목) 규모는 52조7천770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47조210억 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였다. 사업체 수는 12만4천355개로 전국 사업체 중 3.8%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8% 성장했으나 지난해 성장률 6.5%에 비해서는 다소 성장 폭이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총생산액이 5.8% 그리고 운수업은 4.6%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9%가 감소했다. 또 민간소비는 2.0%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구조 = 전남에선 제조업이 총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39.5%와 8.8%로 전년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 농림어업도 9.2%에서 7.9%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서비스업 가운데 운수업의 비중은 5.0%에서 5.4%로 높아졌지만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3.2%에서 2.8%로 줄었다. 지출구조에선 민간소비가 전체의 29.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의 비중은 9.3%였다.

경제활동 별 총 부가가치는 광·제조업이 17조9천990억 원으로 가장 많

았고, 서비스업이 17조5천630억 원, 건설업이 3조8천980억 원, 농림어업이 3조4980억 원, 전기·수도·가스가 가운데 운수업의 비중은 5.0%에서 5.4%로 높아졌지만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3.2%에서 2.8%로 줄었다.

◇소득규모 및 증감률 = 전남의 지역총소득은 32조5천억원으로 전국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은 61.6% 수준이었다. 개인소득은 19조 원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은 5.0%가 늘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과 농약 사용량 年 1,300t 감축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약 사용량이 연간 1천300여t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국대 연구팀(책임자 김호 교수)에 의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193명,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247명을 대상으로 7~10월 면접·청취 조사를 받고 문헌·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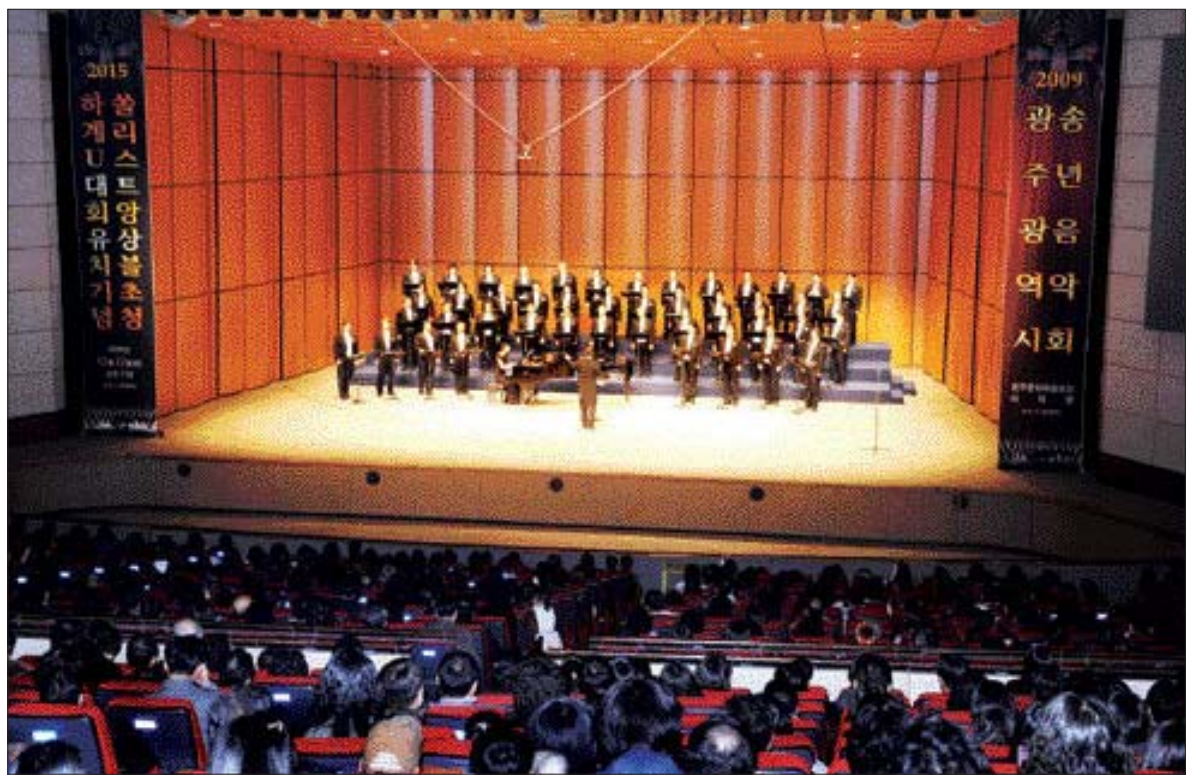
환경 보호 등 친환경 농산물의 간접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농약 사용 감축량은 1천308t, 화학비료 감축량은 2만5천236t 수준(이상 200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자 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은 일반 농가에 비해 평균 약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나선 지 5년 미만일 때 오히려 소득이 줄었지만 5년 이상 경과한 뒤에는 소득이 크게 늘었다. 재배 경력에 따른 소득 증감

을 보면, 5년 미만 농가는 6.8% 감소했지만 5~10년 미만은 11.0%, 10~15년 미만은 22.3%, 15년 이상은 14.0% 각각 증가했다.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매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약 57.7% (유기 농산물 66%, 무농약 농산물 48%) 높았다.

그러나 유통 마진율은 친환경 농산물이 약 2.4% 더 낮았다.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통 구조가 더 효율적이란 의미다. 소비자들은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로 '가정의 식사에 안심하게 된다'(67.2%), '자녀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62.9%),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57.5%)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고 답했다.

또 '소비자-생산자 간 도농 교류가 필요하다'(74.9%),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된다'(60.3%),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58.3%)고 답해 농업 전반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U대회 유치 기념 송년 음악회 2015 하계 U대회 유치를 기념하는 '2009광주시 송년음악회'가 22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는전국 45개 대학 교수 80여명이 참여한 '솔리스트앙상블(지휘 오세준) 남성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초중고 영어수업 늘려 사교육 차단

교과부 내년 업무보고...국립대 총액인건비제 도입 경쟁 촉진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건비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을 정해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초·중·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 말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교육비 절감·영어 강화 =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사업 등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으로 늘리고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학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지원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우주기술·원자력 수출 본격화 =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쏘아 올린 만큼 나로호 2차 발사를 완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